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과 그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21년 청년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적용했다. 총 2,04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남자는 1,074명, 여자는 967명이었고, 종속변수는 우울, 사회참여이며, 통제변수는 학력, 연령, 결혼, 가족동거 여부 등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지지 제공자 유형 등 2가지이다. 기저모형은 남녀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했고, 대안모형은 자유롭게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대안모형이 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주었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청년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 친구가 주는 정서적 지지가 여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에서 청년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청년, 사회적 지지, 우울, 사회참여

*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2020~21년 청년경제사회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육군3사관학교 교수(byong3@hanmail.net)

I. 서론

청년기는 15~24세, 19~35세 등 학자마다 다양하게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2020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한다(배정희, 2022). 청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학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한다(장휘숙, 2010).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아정체성, 진로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취업과 결혼,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인지적, 정서적 역량을 갖추 수 있다(박은하, 2018; Jagers, Rivas-Drake, & Williams, 2019).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학습, 체험,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재정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성보현 외, 2021; Howell, Hall, & Geeland, 2023).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의료 등 인류의 전 영역에서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약 2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수의 국민 및 세계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했다(신예솔·박수현, 2022; Chen et al., 2020).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으로 다수의 국민이 고립감, 우울, 불안감 등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최영순, 2021; Ustun, 2021). 그중에서 청년층은 산업생산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국가발전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코로나 블루에서 회복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정주호 외, 2022; Howell, Hall, & Geeland, 2023).

대한민국의 20~30대 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소위 ‘N포 세대’라고 불리며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많은 난관을 경험하고 있었다(서연주, 2019).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결혼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비즈니스 포스트, 2023.5.15.). 청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취약하여, 더 심한 정신적, 정서적 타격을 경험하고 있다(정주호 외, 2022; Volk et al., 2021). 보건복지부(2021)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으나, 특히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지지가 우울, 자살생각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정주호 외, 2022; Grey et al., 2020; Li et al., 2021). 정주호 등(2022)은 잠재집단 분석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했다. Grey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면봉채를 경험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 불안, 고립감 등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Li 등(2021)은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 등으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 고립감, 불면증 등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 불안 등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했고, 특히 청년층에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운동, 산책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돌봄, 격려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한다(김재희·김현경, 2017; Brougham et al., 2009). 즉, 남녀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고, 지지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Graves et al., 2021). 그러나 팬데믹 기간 발생한 심리적 문제, 사회참여 등에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더 효과적인 지지와 제공자 유형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1970년대부터 건강과 정서, 심리 분야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온 개념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자원을 의미한다(Cobb, 1976; 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지지 제공자, 지지의 유형,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지각을 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고 있다(Cohen & Syme, 1985).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물질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를 하위요인으로 제시했다. 물질적 지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정보적 지지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지식, 견해, 전문성 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나는 필요할 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Boberg et al., 2003). 정서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신뢰, 공감, 돌봄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Reblin & Uchino, 2008). 평가적 지지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피드백, 사회적 비교, 우위적 요소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Hurd et al., 2018).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효과 차이도 발생한다(배점모, 2015; Taylor, 2011).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송호관, 2022; Sandler et al., 1989),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의 지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Camara, Bacigalupe & Padilla, 2017).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변인들에 주는 효과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엄태완·강명진·최정순(2008)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

트레스, 무망감(hopelessness), 자살생각 등 부정적 정서에 끼치는 사회적 지지의 예방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손보영 등(2013)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설정에 주는 영향에서 남자 대학생은 일의 가치와 의미를 매개로 영향을 주는 반면 여자 대학생에서는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영향을 주었다. Flaherty와 Richman (1989)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미국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 집단보다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가 더 명확하고,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ann 등(2002)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에 미치는 예방적 효과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과 성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봉쇄와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재난상황을 초래했다(Horton, 2021). 팬데믹 기간동안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하락했고,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빈곤 등 정서적, 재정적 곤란도가 증가했다(통계청,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했고, 청년층의 28%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꼈다. 같은 기간 청년층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4명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서 자살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이희정·이현, 2022).

우울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서 모든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황지현·채정호, 2017).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취약한 청년층이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을 경험하게 되면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심리적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한다(서울시청년지원활동센터, 2021).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는 우울과 불안 감인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했다(최해연·최현아, 2022; Ilhan, Ahmet, & Metin, 2021).

고립과 우울에 대한 예방적, 보호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효과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팬데믹 기간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도 규명되었다(신예슬·박수현, 2022; Grey et al., 2020; Guo et al., 2021). 신예슬과 박수현(2022)은 20대 청년층이 팬데믹 기간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끼는 고립과 우울감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예방과 보호효과를 보고했다. Guo와 동료들(2021)은 중국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대다수의 청년들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했는데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Grey와 동료들(2020)이 2,000여명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유선, 2020).

한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문제에 주는 효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김효정·이승연·노경란(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불안에 주는 완화 효과가 남정보다는 여성에게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반면, Fusilier, Ganster, & Mayes(1986)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주는 예방적 효과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Day와 Livingston(200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친구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를 크게 지각한다고 했으나,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면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요컨대 사회적 지지가 갖는 심리적 문제의 보호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일부 성차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보호적 효과에 관해서 연구가 많지 않고, 성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지위, 결혼여부, 주거, 학력 등이 우울에 주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과 성차

청년기(성인초기)는 생애발달 과정에서 대학 진학, 취업, 연애, 결혼,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기이다(Mayseless & Keren, 2014).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들은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아영, 2022). 청년기의 주요한 사회참여는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취업, 취미를 위한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기타 봉사활동 등이 있다(곽윤경, 2021; Reis et al., 1993).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층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는데, 통계청(2022)이 시행한 국민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팬데믹기간에 청년층의 사회적 모임, 노동참여, 학업 지속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했다. 또 사회참여가 감소하여 불안, 우울,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가 발생했다(김미숙·강선경, 2021; Farboodi, Jarosch, & Shimer,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혜정과 최영기(2020)는 팬데믹 초기 타격을 입었던 항공운항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활동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했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열악한 상황에서도 취업준비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다. Heaney와 Israel(2008)은 사회적 지지가 성인의 건강증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동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축된 청년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 Lisitsa와 동료들(2020)은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외로움과 소셜미디어 사용 및 인간관계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했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청년일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청년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활동은 감소한다.

팬데믹 이전에도 청년들의 은둔형 고립 문제는 크게 대두되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치열한 입시 및 취업경쟁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낙오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정근하·노영희, 2022).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는데(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Farboodi, Jarosch, & Shimer, 2021),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발생하는 원인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양육 경험, 학교폭력, 입시 및 취업 실패, 성격 등 다양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고립형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했다(유민상·신동훈·이민정, 2021).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주는 긍정적 영향에 관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보고되었고(정주호 외, 2022; Guo et al., 2021), 사회활동 참여에 주는 효과의 성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도 보고되었다(손보영 외, 2013; 조영오, 2020; Alsubaie et al., 2019). 손보영 등(2013)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했는데, 남학생은 사회적 지지가 일의 의미라는 변수를 매개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이라는 변수를 매개하여 진로를 위한 활동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했다. 조영오(2020)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시했는데, 남녀 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Alsubaie 등(2019)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남학생은 친구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으나, 여학생은 부모, 가족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서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라서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2021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데이터의 총 응답자는 2,041명이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승인을 거친 국가승인 통계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구의 전국 18~34세까지 청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표집을 적용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청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2021년도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인 6~8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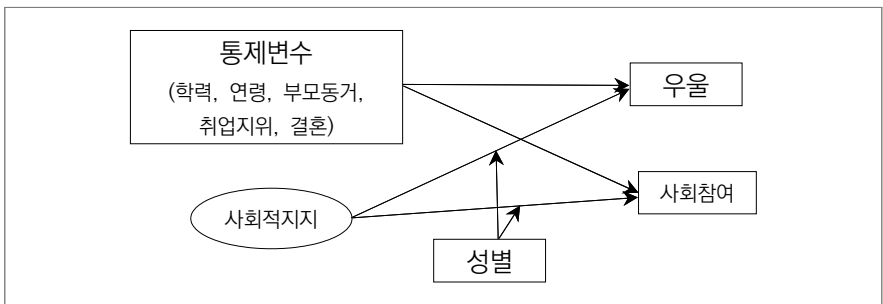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041	100
성별	남자	1,074	52.6
	여자	967	47.4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대	만18~24세	773	37.9
	만25~34세	1,268	62.1
결혼 여부	결혼	345	16.9
	이혼·사별	5	0.2
	미혼	1,691	82.9
대학 진학 여부	대학 진학	1,573	77.1
	대학 미진학	468	22.9
주거	부모와 동거	1,206	59.1
	일시적 분거	110	5.4
	독립	725	35.5
취업 지위	정규직	885	43.4
	비정규직	301	14.7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에 제시했는데, 연구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연령, 부모와의 동거여부, 취업지위, 결혼여부 등 통제변수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과 사회참여이고, 통제변수는 학력, 지역,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지위, 결혼여부 등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종속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의 대표문항, 문항수, 신뢰도 등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 가운데 우울은 “우울하게 지냈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계수 .87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가족과의 교류가 있다”, “소속된 집단이 있다” 등 사회적 관계, 교류 등을 묻는 12문항으로 리커트 6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알파계수 .88이다.

<표 2> 연구모형의 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대표 문항(척도)	문항수	신뢰도 (알파계수)
종속 변수	우울	‘우울하게 지냈다’ 등 리커트 4점 척도	9	.87
	사회 참여	대면교류, 비대면교류 등 리커트 6점 척도	12	.88
통제 변수	학력	대학 진학 여부(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연령	만 나이 비율척도	1	-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취업 지위	정규직 여부(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결혼 여부	결혼 여부(1=기혼, 0=미혼) 이분 변수	1	-
독립 변수	사회적 지지	유형측면(물질, 정보, 정서) 리커트 4점 척도	12	.92
		제공자(가족, 친구, 학교, 공공기관) 리커트 4점 척도	12	.91

통제변수는 학력(대학 진학 여부), 연령(만 나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지위(정규직 여부), 결혼여부 등 이분 변수로 코딩되어 있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로서 유형 측면에서는 물질적 지지(“물질적 지원을 받는다”), 정보적 지지(“취업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정서적 지지(“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이며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신뢰도는 알파계수 .92이다. 제공자 측면에서는 부모, 친구, 학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질, 정보, 정서적 지지를 묻는 12개 문항이며,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신뢰도는 알파계수 .91이다. 집단 구분 변수는 성별로서 남자 청년 집단과 여자 청년 집단으로 구분한다. 각 문항은 척도별로 합산하여 평균을 사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영모형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중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시행한다. 셋째,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을 추정된 중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시행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 단계에서 남·여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통제된 모형의 적합도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우월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채택한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22.0을 사용했고,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해서는 AMOS 25.0을 사용했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되는 9개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남자 청년 집단과 여자 청년집단으로 나눠서 <표 3>과 <표 4>에 제시했다.

<표 3> 남자청년집단의 상관분석결과(N=1,074)

	1	2	3	4	5	6	7	8
1	1.00							
2	-.15**	1.00						
3	-.09*	.08*	1.00					
4	.01	.02	.04	1.00				
5	-.07*	.03	.02	.27**	1.00			
6	-.11*	.14**	.05	-0.02	0.03	1.00		
7	-.12**	.09*	-.03	0.07	.08*	-0.01	1.00	
8	-.31**	.17**	-.08*	.08**	-0.01	-.41**	-0.06	1.00
M	1.26	4.02	.45	26.23	.39	.41	.15	2.12
SD	0.40	0.73	-	4.69	-	-	-	0.32

* 변수명: 1=우울, 2=사회활동, 3=대학진학여부, 4=연령, 5=부모와 동거, 6=취업지위, 7=결혼여부, 8=사회적지지

남자 청년집단의 연구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이 있고($r=-.31, p<.01$), 사회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r=.17, p<.01$). 또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 청년집단의 우울($M=1.26, SD=.40$)은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활동 수준($M=4.02, SD=.73$)은 높은 수준이었다.

〈표 4〉 여자청년집단의 상관분석결과(N=967)

	1	2	3	4	5	6	7	8
1	1.00							
2	-.19**	1.00						
3	-.09*	.15**	1.00					
4	-.03	.07*	.07*	1.00				
5	-.16**	.08**	-.05	.26**	1.00			
6	-.13*	.09**	.07*	.06*	.08*	1.00		
7	-.05	.03	-0.02	0.06	0.01	.17**	1.00	
8	-.29**	.34**	-.08*	-.07*	-.07*	.54**	-.14**	1.00
M	2.33	3.04	.47	26.19	.49	.40	.14	2.23
SD	0.48	0.75	-	4.69	-	-	-	0.42

* 변수명: 1=우울, 2=사회활동, 3=대학진학여부, 4=연령, 5=부모와 동거, 6=취업지위, 7=결혼여부, 8=사회적지지

여성 청년집단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고($r=-.29, p<.01$), 사회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34, p<.01$).

2.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5〉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5〉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562.09	26	.08	.83	.82	.81
② 구조 동일성	132.98	21	.06	.89	.90	.89
③ 자유추정	43.32	13	.04	.97	.97	.95
$\Delta(③-②)$	89.66	8	.02	.08	.07	.06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고($\chi^2=562.09$, $df=26$, $RMSEA=.08$, $CFI=.82$, $NFI=.82$, $TLI=.81$), 구조동일성 모형은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chi^2=132.98$, $df=21$, $RMSEA=.06$, $CFI=.89$, $NFI=.90$, $TLI=.89$). 마지막으로 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chi^2=43.32$, $df=13$, $RMSEA=.04$, $CFI=.97$, $NFI=.97$, $TLI=.95$), 구조동일성 모형과 위계적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43.32$, $\Delta df=13$, $p<.001$, $\Delta RMSEA=.04$, $\Delta CFI=.08$, $\Delta NFI=.07$, $\Delta TLI=.06$).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가 남녀 청년의 팬데믹 기간 우울감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6〉에는 남녀 집단의 자유추정모형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6〉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 (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대학 진학	.08	.05	1.11		우울 ← 대학 진학	.10	.90	1.02	
우울 ← 나이	-.01	.01	1.01		우울 ← 나이	.02	.01	1.86	
우울 ← 가족 동거	-.10	.01	1.12		우울 ← 가족 동거	-.18	.01	3.02**	
우울 ← 취업지위	-.29	.01	3.11**		우울 ← 취업지위	-.15	.02	2.16*	
우울 ← 결혼 여부	-.13	.01	2.32*		우울 ← 결혼 여부	-.10	.03	1.88	
사회활동 ← 대학 진학	.27	.02	3.65**		사회활동 ← 대학 진학	.21	.02	3.10**	
사회활동 ← 나이	.18	.01	2.90**		사회활동 ← 나이	.16	.01	2.69**	
사회활동 ← 가족 동거	.09	.02	1.20		사회활동 ← 가족 동거	.10	.02	1.31	
사회활동 ← 취업지위	.45	.03	4.70***		사회활동 ← 취업지위	.41	.09	3.12**	
사회활동 ← 결혼 여부	.20	.02	4.04***		사회활동 ← 결혼 여부	.10	.02	2.34*	
우울 ← 사회적지지	-.17	.02	9.08***		우울 ← 사회적지지	-.24	.02	12.59***	
사회활동 ← 사회적지지	.24	.05	6.46***		사회활동 ← 사회적지지	.38	.03	12.83***	

* $p<.05$, ** $p<.01$, *** $p<.001$

〈표 6〉을 살펴보면 통제변수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사회적 지지는 청년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해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여성 청년 집단에 주는 감소효과($\gamma = -.24, p < .001$)가 남성 청년집단에 주는 감소효과($\gamma = -.17, p < .0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효과 역시 여성집단($\gamma = .38, p < .001$)이 남성집단($\gamma = .24, p < .001$)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청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의 유형(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이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 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7〉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7〉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543.78	45	.09	.82	.83	.82
② 구조 동일성	78.92	30	.07	.87	.88	.88
③ 자유추정	27.87	25	.05	.94	.93	.93
$\Delta(③-②)$	51.05	5	.02	.07	.05	.05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고($\chi^2 = 543.78, df = 45, RMSEA = .09, CFI = .82, NFI = .83, TLI = .82$), 구조동일성 모형은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chi^2 = 78.92, df = 30, RMSEA = .07, CFI = .87,$

$NFI=.88$, $TLI=.88$). 마지막으로 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chi^2=27.87$, $df=25$, $RMSEA=.05$, $CFI=.94$, $NFI=.93$, $TLI=.93$), 구조동일성 모형과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결과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51.05$, $\Delta df=5$, $\Delta RMSEA=.02$, $\Delta CFI=.07$, $\Delta NFI=.05$, $\Delta TLI=.05$).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남녀 청년의 팬데믹 기간 우울감과 사회적 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8>에는 남녀집단의 자유추정모형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8>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정보지지	-.05	.02	1.22	우울	← 정보지지	-.12	.01	2.47*
사회활동	← 정보지지	.14	.02	3.48**	사회활동	← 정보지지	.21	.02	4.99***
우울	← 정서지지	-.11	.02	2.17*	우울	← 정서지지	-.28	.02	5.07***
사회활동	← 정서지지	.14	.03	3.88**	사회활동	← 정서지지	.32	.02	8.03***
우울	← 물질지지	-.11	.02	2.11*	우울	← 물질지지	-.14	.02	2.59*
사회활동	← 물질지지	.05	.02	1.06	사회활동	← 물질지지	.20	.03	3.13**

* $p<.05$, ** $p<.01$, *** $p<.001$

<표 8>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남성 청년집단보다 높았다. 정보적 지지는 남성 청년집단의 우울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나, 여성 청년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효과가 있었다($\gamma=-.12$, $p<.05$). 정보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집단($\gamma=.14$, $p<.01$)과 여성집단($\gamma=.21$, $p<.001$) 모두에서 유의미했고, 여성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았다. 정서적 지지는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우울을 감소시켰는데, 여성집단에서 감소효과가 더 높았다($\gamma=-.28$, $p<.001$). 정서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영향 역시 남성 청년 집단과 여성 청년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했는데, 여성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았다($\gamma=.32$, $p<.001$).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 지지의 제공자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학교, 가족, 친구, 공공기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9>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9>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651.37	54	.08	.85	.84	.84
② 구조 동일성	82.60	36	.06	.87	.88	.88
③ 자유추정	55.09	27	.04	.95	.94	.94
$\Delta(③-②)$	27.51	9	.02	.08	.06	.06

자유추정모형이 가장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므로($\chi^2=55.09$, $df=27$, $RMSEA=.04$, $CFI=.95$, $NFI=.94$, $TLI=.94$), 모수추정치를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10>에 제시했다.

<표 10>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학교지지	.01	.31	.04		우울 ← 학교지지	.05	.47	1.17	
우울 ← 가족지지	-.02	.31	.45		우울 ← 가족지지	-.15	.04	-2.48*	
우울 ← 친구지지	-.04	.52	-.80		우울 ← 친구지지	-.16	.06	-2.66*	
우울 ← 공공지지	-.15	1.1	4.04***		우울 ← 공공지지	.05	.55	1.27	
사회활동 ← 학교지지	-.04	.62	-.97		사회활동 ← 학교지지	.02	.71	.51	
사회활동 ← 가족지지	-.06	.60	-1.34		사회활동 ← 가족지지	.10	.09	2.56*	
사회활동 ← 친구지지	.11	.20	3.90**		사회활동 ← 친구지지	.11	.30	3.68**	
사회활동 ← 공공지지	-.01	.95	-.16		사회활동 ← 공공지지	.01	.83	.02	

* $p<.05$, ** $p<.01$, *** $p<.001$

〈표 10〉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라서 남녀 집단의 우울과 사회적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집단의 우울에는 공공지지가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gamma=.17, p<.001$), 여성집단의 우울에는 가족지지($\gamma=-.15, p<.05$)와 친구지지($\gamma=-.16, p<.05$)가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남성집단의 사회활동에는 친구지지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gamma=.11, p<.01$), 여성집단의 사회활동에는 가족지지($\gamma=.10, p<.05$)와 친구지지($\gamma=.11, p<.01$)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남녀 청년집단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남녀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해 유의미하게 감소효과가 있고, 여성집단에 주는 효과가 더 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성집단의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년집단에 주는 감소효과가 더 크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여성집단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유형이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집단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주는 우울 감소효과가 크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유형이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청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집단의 경우 친구지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만이 유의미하지만 여성집단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론이 주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기간 다수의 국민이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예솔과 박수현(2022)이

팬데믹 기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Guo와 동료들(2021)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지지 제공자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제공자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영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업하여 시스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지 역시 남성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고립된 청년의 경우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팬데믹 이전에서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이미 사회문제화 되었고, 팬데믹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이 연대하여 소외된 청년들에게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위 청년배당,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등 다양한 청년관련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이지은·한인정·김교성, 2023). 공적 지지가 여성집단에게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는 여성들의 경우 공공기관보다는 친구, 가족과 같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지지 체제 설계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중 정보적 지지는 남성과 여성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여성청년에 대해서는 우울의 감소효과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했는데, 특히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년세대에는 정보적 지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Springer, Menzel, & Zieger, 2020). 정보적 지지는 상황판단, 의사결정 등이 필요할 때 주변 인물이나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데(Boberg et al., 2003), 팬데믹 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 여성 청년들에게 정보적 지지의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지지는 여성 청년들의 우울감에 가장 큰 예방효과를 보였고, 사회활동에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정서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성차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결과(김효정·이승연·노경란, 2014)와 배경 변인을 통제하면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는(Day & Livingston, 2003) 엇갈리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특히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우울에 대해서는 예방효과,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촉진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력, 결혼, 취업 등 관련된 배경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성 청년들의 가족과 친구와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청년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복지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혜은·정태욱, 2021; Ilhan, Ahmet, & Metin, 2021).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구축된 청년경제사회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규명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우울예방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설계를 통해 규명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청년심리에 주는 다양한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영향력과 성차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더 많은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실험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윤경(2021).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9권 제1호. 60-89.
- 김미숙·강선경(2021). “COVID-19 대유행이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명연구. 제60권. 133-153.
- 김재희·김현경(2017). “학령후기의 의도적 통제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기술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와 성차.” 인간발달연구. 제24권 제3호. 37-56.
- 김혜정·최영기(2020). “항공서비스학과 전공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제45권 제3호. 125-146.
- 김효정·이승연·노경란(2014).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9권 제4호. 339-359.
- 박은하(2018). “취약 청소년·청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0호. 299-319.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점모(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49-70.
- 배정희(2022). “코로나19 전후 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우울 변화와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53권 제4호. 121-146.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82에서 2023.8.27. 인출.
- 비즈니스 포스트(2023.5.15.). “‘내년 합계출산율 0.7명’, 국회도서관 저출산 현황·대책 정리한 서적 발간.”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216에서 2023.8.27. 인출.
- 서연주(2019).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대중서사연구. 제25권 제1호. 55-85.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21).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경로 영향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20-2.
- 성보현·최은희·남윤명·조진희·홍성호(2021). “청년연구자 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2019~2021년).” 충북경제 Focus. 1-25.

- 손보영·윤민지·박소현·임제희(2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다중역할계
획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
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1189-1208.
- 송호관(2022). 사회적 지지를 통한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기인식 탐색: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활용. *초등교육연구*. 제35권 제1호. 77-100.
- 신예슬·박수현(2022).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가 20대의 코로나 우울에 이르는
경로 탐색: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7권 제4
호. 589-607.
- 엄태완·강명진·최정순(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
회적 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22권. 5-30.
- 유민상·신동훈·이민정(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지은·한인정·김교성(2023).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 : 청년 생태
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78호. 57-96.
- 이혜은·정태욱(2021). 비대면 학습상황에서 학업소진과 학습몰입의 관계 정서적
지지와 메타인지전략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641-663.
- 이희정·이현(2022). “청년의 아노미와 사회적 지지 수준의 잠재집단 구분과 집단
간 자살생각 유무의 차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73권. 231-250.
- 장휘숙(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제2호. 1-17.
- 정근하·노영희(2022).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
학보*. 제26권 제1호. 229-250.
- 정주호·한연수·김동욱·조민호(2022). “코로나19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유형화 연구: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4호.
1-32.
- 조영오(2020). “청소년범죄자의 비행요인에 있어서의 성별 간 차이.” *치안정책연
구*. 제34권 제1호. 5-38.
- 주유선(2020). *청년의 사회적 지지*. 보건복지포럼. 제284호. 59-68.
- 최아영(2022).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326-346.
- 최영순(2021). “코로나블루, 팬데믹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UTURE
MEDICINE & HUMANITIES*. 제4권 제1호. 75-92.

- 최해연·최현아(2022).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의 이해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4권 제2호. 643-664.
- 통계청(2022).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90106000000&bid=12316&act=view&list_no=418667에서 2023.8.27. 인출.
- 황지현·채정호(2017).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사고에 우울, 낙관성과 감사성향이 미치는 영향.” 우울조울병. 제15권 제3호. 123-129.
- Alsubaie, M. M., Stain, H. J., Webster, L. A. D., & Wadman, R.(2019). The role of source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4(4), 484-496.
- Boberg, E. W., Gustafson, D. H., Hawkins, R. P., Offord, K. P., Koch, C., Wen, K., Kreutz, K., & Salner, A.(2003). Assessing the unmet information, support and care delivery needs of men with prostate cancer.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49(3), 233-242.
- Brougham, R. R., Zail, C. M., Mendoza, C. M., & Miller, J. R.(2009). Stress, Sex Difference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Curr Psychol.*, 28, 85-97.
- Camara, M., Bacigalupe, G., & Padilla, P.(2017).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re you helping me or stressing me out?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2(2), 123-136.
- Chen, F., Zheng, D., Liu, J., Gong, Y., Guan, Z, & Lou, D.(2020).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during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Brain Behav Immun.*, 88, 36-38.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3.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Syme, S. L.(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Day, A. L., & Livingstone, H. A.(2003). Gender differences in

- perceptions of stressors and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among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5(2), 73-83.
- Farboodi, M., Jarosch, G., & Shimer, R.(2021). Internal and external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in a pandemic.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6. <https://doi.org/10.1016/j.jet.2021.105293>.
- Flaherty, J., & Richman, J.(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 empirical test. *Social Science & Medicine*, 28(12), 1221-1228.
- Fusilier, M. R., Ganster, D. C., & Mayes, B. T.(1986). The social support and health relationship: Is there 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2), 145-153.
- Graves, B. S., Hall, M. E., Dias-Karch, C., Haischer, M. H., & Apter, C.(2021).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stress and coping among college students. *PLoS ONE*, 16(8), e025563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5634>
- Grey, I., Arora, T., Thomas, J., Saneh, A., Tohme, P., & Abi-Habib, R.(2020).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lee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ychiatry Research*, 293,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0.113452>.
- Guo, K., Zhang, X., Bai, S., Minhat, H. S., Nazan, A. I. N. M., Feng, J., & Saliluddin, S.(2021). Assessing social support impact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Shaanxi provi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f China. *PLoS One*, 16(7), e0253891.
- Hann, D., Baker, F., Denniston, M., Gesme, D., Reding, D., Flynn, T., Kennedy, J., & Kieltyka, R. L.(2002).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cancer pati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2(5), 279-283.
- Heaney, C. A., & Israel, B. A.(2008).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K. Glanz, B. K. Rimer, & K. Viswanath,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89-210)*. San Francisco, CA: Wiley & Sons.

- Horton, R.(2021). *The COVID-19 catastrophe: What's gone wrong and how to stop it happening again*. MA: John Wiley & Sons.
- House, J.(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Howell, S., Hall, W., & Geelan, D.(2023). Exploring the Perspectives of Engineering Undergraduates on Employability and Employability Building Activities. *Higher Education, Skills and Work-based Learning*, 13(1), 161-178.
- Hurd, N. M., Albright, J., Wittrup, A., Negrete, A., & Billingsley, J.(2018). Appraisal Support from Natural Mentors, Self-worth, and Psychological Distress: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Underrepresented Students Transitioning Through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 1100-1112.
- Ilhan, C., Ahmet, T., & Metin, B.(2021). Psychological Inflexibility Predicts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n Educational Psychology*, 15(1), 11-24.
- Jagers, R. J., Rivas-Drake, D., & Williams, B.(2019). Transformativ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Toward SEL in Service of Educational Equity and Excellence. *Educational Psychologist*, 54(3), 162-184.
- Li, F., Luo, S., Mu, W., Li, Y., Ye, L., Zheng, X., Xu, B., Ding, Y., Ling, P., Zhou, M., & Chen, X.(2021). Effects of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mental health of different age grou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MC Psychiatry*, 21, 1-14.
- Lisitsa, E., Benjamin, K. S., Chun, S. K., Skalisky, J., Hammond, L. E., & Mezulis, A. H.(2020). LONELINESS AMONG YOUNG ADULTS DURING COVID-19 PANDEMIC: THE MEDIATIONAL ROLES OF SOCIAL MEDIA USE AND SOCIAL SUPPORT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9(8), <https://doi.org/10.1521/jscp.2020.39.8.708>
- Mayseless, O., & Keren, E.(2014). Finding a Meaningful Life as a Developmental Task in Emerging Adulthood: The Domains of Love and Work Across Cultures. *Emerging Adulthood*, 2(1), 63-73.

- Reblin, M., Uchino, B. N.(2008).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and its implication for health.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1(2): 201-5.
- Reis, H. T., Lin, Y.-c., Bennett, M. E., & Nezlek, J. B. (1993). Change and consistency in social participation during early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33-645.
- Sandler, I. N., Miller, P., Short, J., & Wolchik, S. A.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77-307). CA: John Wiley & Sons.
- Springer, S., Menzel, L. M., & Zieger, M. (2020). Google Trends provides a tool to monitor population concerns and information needs during COVID-19 pandemic.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7, 109-110.
- Taylor, S. E. (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H. S. Frie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189-214). Oxford University Press.
- Ustun G. (2021). Determining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in a society affected by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7(1), 54-63.
- Volk, A. A., Brazil, K. J., Franklin-Luther, P., Dane, A. V., & Vaillancourt, T. (2021).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and personality on COVID-19 coping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511-514.

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in young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ung, Byong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2021, when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impact.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the data of the 2021 Youth Socio-Economy. A total of 2,041 data were analyzed, with 1,074 men and 967 women, the dependent variables being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control variables being educational background, age, marriage, and family residence, and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being the subtype of social support and the type of support provider. The underlying model was constrain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male and female groups equally, and the alternative model was freely estimated. As a resul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verall, the impact on female youth groups was even greater, and in particular, the positive effect of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on women was greater.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design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ducing depression and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in future distancing.

Keywords : gender difference, depression, social participation, pandemic, covid19, young adults

*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